

서구, 장학 지원으로 미래 인재 122명 키운다

고등학생·대학생·학교밖 청소년 대상 9월30일까지 모집

122명에게 장학금 2억620만 원 지원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 나선다.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은 오는 9월30일까지 장학생 122명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91명, 학교밖 청소년 5명이며 총 2억 6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분야는 성적우수, 행복, 다자녀, 장애인, 예체능 특기생, 꿈지원 수기공모 등이다. 경제적 여건과 학생의 재능,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장학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장학재단 소식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

청 행복교육과(062-360-7923) 또는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찬갑 서구 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은 학생 한 사람의 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우는 투자”라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나눔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장학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학생 1030명에게 약 1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서구 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예체능 분야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과 함께 인재를 키우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음식·얼음 위생관리...광산구 식중독 예방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한 집중 점검

음식점·급식소 위생관리·홍보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와 잦은 호우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에 나선다.

광산구는 우선 음식점 276개소, 집단급식소 255개소 등 531개소에 단계별 식품 안전 요령과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기상 정보와 연계한 식중독 발생 위험도를 나타내는 ‘식중독 지수’가 경고 단계 이상이 되면 즉시 지수와 주의 사항을 알려 현장의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광산구는 여름철 특히 위생 관리

가 중요한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더운 날씨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 얼음, 음료류, 농·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한다.

누리소통망,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도 집중 전개한다.

광산구는 6일 수완동 롯데마트 앞에서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름철은 세균 증식이 활발해 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

키기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취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과 식재료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식재료의 보관 온도 준수와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교차오염 방지 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냉장·냉동시설 관리 상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계절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은 수거 검사를 확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와 행정조치를 진행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기본 예방수칙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름철 야외활동과 휴가철 도시락 이용 시 주의사항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식품 안전관리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광산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광산구 식중독 예방 캠페인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